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의 근본 과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원리와 토대를 제공하고 일반화하는 데 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기존의 이론 중심 윤리학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덕적 문제 상황들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실제 생활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윤리적 과제들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윤리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윤리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윤리학은 ㉠

- ① 도덕 명제에 대한 검증 가능성과 분석적 접근을 강조한다.
- ② 도덕적 탐구가 학문적으로 정립 가능한 분야임을 부정한다.
- ③ 도덕규범의 현실적인 적용과 구체적인 대안의 실천을 강조한다.
- ④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 윤리 이론의 응용 가능성을 부정한다.
- ⑤ 도덕적 관행을 가치와 무관한 문화적 사실로 볼 것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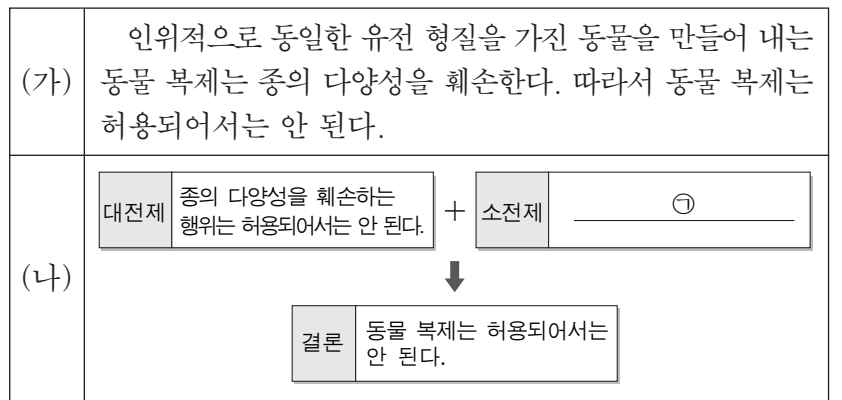
2.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윤리는 도덕적 추론이 아니라 도덕적 태도나 선에 대한 열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남성 중심적 윤리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고, 인간관계, 책임, 헌신 등의 여성적 특성을 지닌 윤리에 주목해야 한다.



- ① 도와주었을 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 ②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 행동하세요.
- ③ 동정심이 아닌 누구나 동의 가능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④ 어떤 선택이 더 많은 사회적 효용을 낳을지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 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보다 도덕적 의무 의식에 따라 행동하세요.

3.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물 복제는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동물을 생산한다.
- ② 동물 복제는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 ③ 동물 복제는 인위적 유전자 조작으로 종의 다양성을 훼손한다.
- ④ 동물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인간 복제로 진행된다.
- ⑤ 동물 복제는 인간의 권익을 위한 특정 종만으로 생태계를 재편한다.

4.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그대 무리 중 정직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양을 몰래 훔친 것을 증언했지만, 우리 무리 중 정직한 사람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그 사실을 숨겼네. 정직은 그 속에 있다네.
- 자식은 부모가 부르시면 빨리 대답하여 늦지 않도록 한다. 부모가 연세 드시면 늦게 귀가하지 않는다. 부모가 병환 중이시면 자식은 얼굴을 환하게 하지 않고, 웃되 잇몸을 보이는 데 이르지 않으며, 노하되 꾸짖는 데 이르지 않는다.

- ① 부자유친(父子有親)의 본질은 집단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 ② 부자(父子) 간 정직은 친애[愛]보다 올바름[義]을 우선해야 한다.
- ③ 자식은 부모의 의중을 살펴서 언행을 삼가며 공대(恭待)해야 한다.
- ④ 부모를 위하여 자식은 결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
- ⑤ 효의 정신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5. 다음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모든 도덕주의자들은 인간의 집단행동이 지닌 야수적 성격과 모든 집단적 관계들에 있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힘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 갈등이 인류 역사에서 불가피한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 ① 개인 윤리적 이타성과 사회 윤리적 정의는 항상 상호 배타적인가?
- ② 개인들의 자발적 타협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인가?
- ③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함양은 사회 정의 실현의 충분조건인가?
- ④ 개인 간 갈등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될 수 있는가?
- ⑤ 개인의 합리적 도덕성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도덕성보다 열등한가?

6.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삶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새가 죽을 때는 울음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이 죽을 때는 하는 말이 착한 법이라네. 지사(志士)는 삶을 영위하되 인(仁)을 해침이 없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인을 이룬다네.
 (나) 삶과 죽음은 인간의 운명[命]이니, 진인(真人)은 삶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미워하지도 않네. 본래 생명도 형체도 기(氣)도 없었고, 혼돈 속에서 기가 생겨 그것이 변하여 형체가 되고 생명이 되고 죽음이 된 것이라네.

- ① (가): 도덕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도 있다.
- ② (가): 사람이 죽음에 임해서는 자기 삶을 성찰하게 되는 법이다.
- ③ (나): 진인이라 해도 그의 삶과 죽음은 기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 ④ (나): 죽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운명이므로 슬퍼할 이유가 없다.
- ⑤ (가), (나): 해탈하여 세속의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지금까지 남성은 순종이 여성의 본성이라고 여성에게 가르쳐 왔지만 누구도 남녀의 본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간 지성의 차이는 사회 환경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법적 예속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다양한 직업으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능 활용 기회를 가로막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불공평하고 사회적으로는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여성이든 남성이든 개인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맡겨야 합니다.



- ① 여성을 예속시키는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사회적 역할은 남녀의 본성에 따라 적합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 ③ 여성의 분별력이 근본적으로 열등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④ 양성 평등은 전 인류에게 유용하므로 완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 ⑤ 남성이 독점해 온 모든 직업을 여성에게 전면 개방해야 한다.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시민은 한 순간이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감옥이다.
 을: 시민들의 부정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특히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부른다.

— < 보 기 —

- ㄱ. 갑: 개인은 법에 우선하여 양심과 정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ㄴ. 을: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정치 행위이다.
- ㄷ. 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일부의 부정한 법이나 정책들에 한정된다.
- ㄹ. 갑, 을: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일 필요는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9. (가), (나)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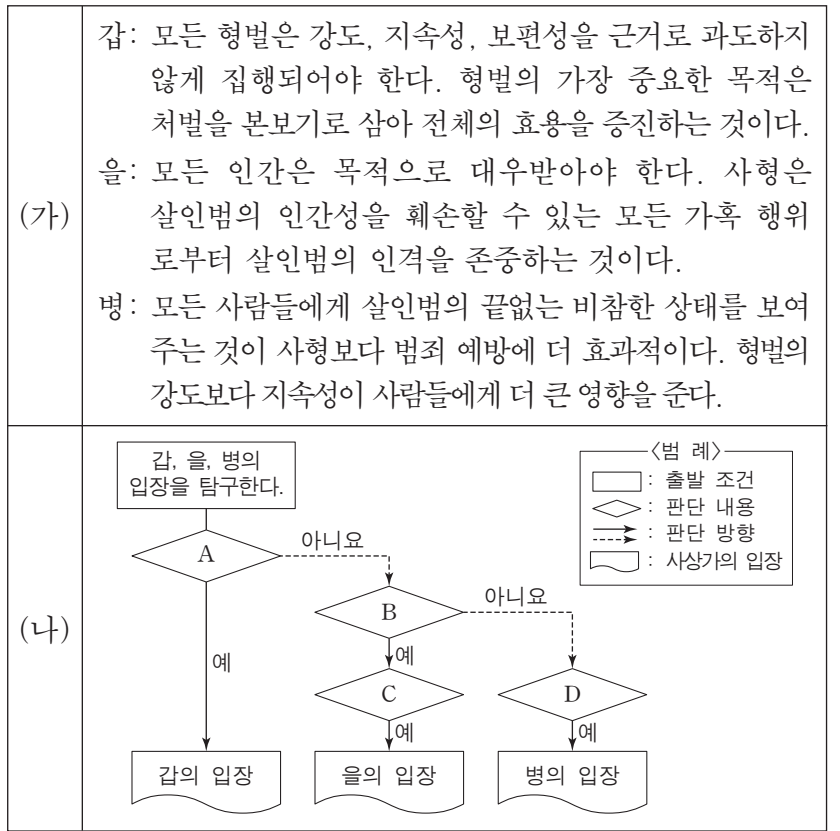
(가) 소비의 목적은 소비자의 만족감 충족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범위 내에서 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소비는 자신을 넘어 사회 및 환경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소비해야 한다.

— < 보 기 —

- ㄱ. (가): 자율적 선택권과 최적의 효용은 소비의 필수적 요소이다.
- ㄴ. (가): 개인적 선호보다 공공성을 상품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ㄷ. (나): 생태적 영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소비는 소비자의 의무이다.
- ㄹ. (가), (나): 인권과 노동의 가치는 소비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ㄱ. A: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살인범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하는가?
- ㄴ. B: 사형은 범죄 억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응보적 처벌인가?
- ㄷ. C: 사형은 살인죄에 대한 동등성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벌인가?
- ㄹ. D: 사형은 종신형에 비해 처벌의 사회적 효용이 낮은 형벌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예술은 사회에 저항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은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한다. 고급 예술은 상품화되었다 하더라도 자율성을 주장하지만, 대중 문화는 산업을 자처하며 대중을 기만하고 그들의 의식을 속박한다.


을: 예술은 삶의 일부를 형성한다. 경험으로서 예술 작품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 오늘날 미적인 것은 모든 삶의 영역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삶 속에서도 대중 예술에서도 미적인 것의 구현은 가능하다.

- ① 갑: 문화 산업은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사회를 몰개성화한다.
- ② 갑: 예술 본연의 목적은 일상적 삶의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이다.
- ③ 을: 대중 예술은 예술과 삶을 통합시키기보다는 분리시킨다.
- ④ 을: 예술 작품은 삶 속에서 기능하지 않아야 미적 가치를 지닌다.
- ⑤ 갑, 을: 대중 예술은 감상자를 사유의 주체가 되도록 독려한다.


12. 갑이 을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지털 익명성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선이라 할 수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정당하게 행사되려면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해.

디지털 익명성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일종의 악이라 할 수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의 표현은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회적 신뢰와 질서를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일으키므로 금지되어야 해.



갑



을

- ① 익명성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 성격을 지님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사이버 폭력의 증가가 디지털 익명성에 기인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사이버 공간의 실명 공개가 표현의 책임성을 강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규제가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익명성 보장이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불신을 조장함을 간과하고 있다.

13.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적이라 욕하며 원성이 드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청렴은 큰 장사[賈]이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고 자 한다.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몰래 하지 않겠는가마는 밤에 한 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선물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신세지는 정[恩情]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움[私]이 행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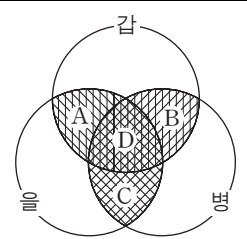
- ① 청렴은 목민관의 어떤 과오도 면책시켜 주는 지혜로운 덕목이다.
- ② 청렴한 목민관에게 청백리(淸白吏) 칭호는 관직 상승의 수단이다.
- ③ 포부가 원대하고 지혜로운 목민관은 부패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 ④ 백성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다면 사사로운 청탁(淸託)은 가능하다.
- ⑤ 목민관의 청렴은 애민(愛民)과 봉공(奉公)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14.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전쟁은 신법(神法)을 지키고 공동선과 평화를 위한 것이다.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적법한 권위를 지닌 군주에 의해 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공격의 정당한 이유와 올바른 의도가 있어야 한다. 전쟁은 한 국가가 백성들에게 가한 나쁜 짓을 바로잡길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차지한 것을 돌려주길 거부할 경우 그 악을 징벌하는 것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적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어야 하고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적개심이 아닌 공공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교전 중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 이상의 많은 희생을 야기하는 행위는 신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 ① 무력은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없다.
- ② 개별 국가의 폭정은 전쟁 선포의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
- ③ 공동선과 평화를 위해서는 일반인도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 ④ 방어 이외에 어떠한 선제공격도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 ⑤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모든 살상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고유의 선을 갖는다. 모든 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p> <p>을: 우리는 지각, 기억, 믿음 등을 지닌 삶의 주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들의 가치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존중되어야 한다.</p> <p>병: 우리는 대지를 사랑과 존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대지와 인간의 윤리적 관계는 대지에 대한 사랑, 존경, 감탄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 <범례> —</p> <p>A: 갑과 을만의 공동 입장</p> <p>B: 갑과 병만의 공동 입장</p> <p>C: 을과 병만의 공동 입장</p> <p>D: 갑, 을, 병의 공동 입장</p> </div> </div>

— <보기> —

ㄱ. A: 개체론적 관점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ㄴ. B: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더라도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ㄷ. C: 도덕적 행위 능력 유무가 도덕적 고려 대상의 설정 근거는 아니다.

ㄹ. D: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6. 다음 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세계 평화를 위한 특별한 책임이 종교에 있다. 종교들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세계 평화는 시작된다. 인류는 평화보다 전쟁을, 화해보다 광신을, 대화보다 우월성을 부추기는 종교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이 세계에 차별의 윤리, 모순의 윤리, 투쟁의 윤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생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종교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 <보기> —
 ㄱ. 종교들이 공유하는 가르침의 실천은 화합과 공존의 토대이다.
 ㄴ. 종교 간의 관용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ㄷ. 타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현실 세계의 갈등과 무관하다.
 ㄹ. 보편 윤리의 실현과 종교의 단일화는 인류 생존의 조건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심정 윤리는 소명을 받들어 희생하는 신앙인들처럼 내면의 신념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책임 윤리는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지도자들처럼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을: 현대 문명이 초래한 위기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며,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 자체만으로 책임을 갖는다. 이에 우리는 책임지는 행동을 통해 '윤리적 공백'을 극복해야 한다.

- ① 갑: 정치 영역에서는 책임 윤리보다 심정 윤리를 우선해야 한다.
 ② 갑: 심정 윤리에서는 행위의 선한 의도가 아닌 결과를 중시한다.
 ③ 을: 인류가 존속해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할 정언 명령이다.
 ④ 을: 자연에 대한 인류의 책임은 예방이 아닌 보상을 위한 것이다.
 ⑤ 갑, 을: 행위의 의도가 선하다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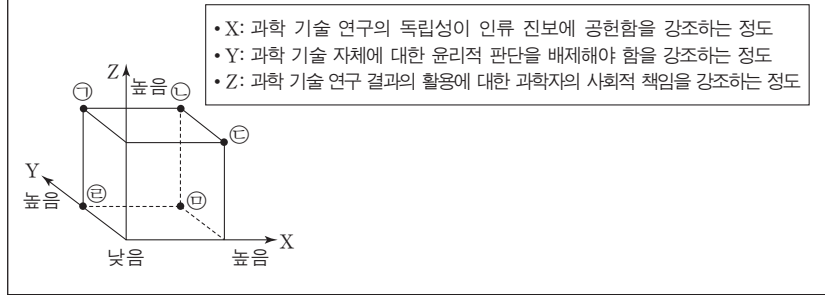
18.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정의는 합법적이며 공정한 것을 의미한다. 특수한 정의의 한 종류는 명예, 금전 등의 분배에 관련되는 것이고, 다른 종류는 사람들 간의 거래에 관련되는 것이다.
 을: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병: 정의는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원칙들의 역할에 의해 규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합의할 대상이다.

- ① 갑: 정의로운 분배는 비례적이고 부정의한 분배는 비례에 어긋난다.
 ② 을: 최소국가보다 기능이 확대된 국가의 도덕적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③ 병: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사실이다.
 ④ 갑, 병: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에게 각자의 당연한 몫을 할당해야 한다.
 ⑤ 을, 병: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19.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과학 기술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과학 기술 연구 및 그 결과 활용에 대한 과학자의 공적인 책임 의식과 외부 규제가 없다면, 인류는 과학 기술에 종속당하여 제어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불행한 미래에 봉착하게 된다.
 (나) 과학 기술 자체에 선악의 잣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연구 성과의 활용과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과학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어서는 안 된다. 외부 간섭에서 벗어나 연구에만 전념할 때 과학 기술은 발전 가능하며, 그 결과 인류는 지속적으로 번영하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정치 문화는 한 사회의 부와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자원과 부가 빈약한 사회라 할지라도 그 사회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유념하여 만민은 고통을 겪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한다.
 을: 타인은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사치품에 돈을 쓰고 있다면, 확실히 우리는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한 것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원조의 목적을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 상대적으로 빈곤하지만 질서 정연한 사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을은 ㉢ 원조의 목적을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 개인이 아니라 국가만이 원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해외 원조에서 ㉤ 갑은 사회의 정의를, 을은 개인들의 복지를 중시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